

제벤처생태계 개념통합형 기초공통교육 모델화 연구

박우희*

함벤처평생교육원 원장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경영학과 MBA교육과정의 세상의 모든 제품과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듯이, 세상의 어떤 분야의 제품이든 그 시작인 한 개 착안에서부터 시장력 확보를 위해 시도 되는 도전행위의 매개인 모든 착안과 아이디어가 기업이 되는 과정인 제벤처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학문이 될, MVA(PH-MVA, master of venture arming, 벤처무장학)학의 개념적 모델링의 시작에 필요로 하는 정의론과 개념론으로, MBA에 있어 경영학원론이 개론화되듯, MVA에 있어 그 개론서가 될 벤처학원론서 설계에 있어서의 시작인 1편 기초론을 구성하는 내용을 벤처창업이나 기업의 신제품개발 부서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제벤처 생태계의 모든 직간접 관련 직무자들이 공통적으로 무장하면 벤처적 행위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직무자들 같이 소통력은 물론 직무매칭력 등의 분업 협업력이 매우 높아 질 것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제시하는 정의와 개념을 제벤처 생태계 전체의 표준으로 삼고 삼아, 누구의 어떤 모델이든, 창조경제의 일부로서 미생들의 벤처(창업, 기업만들기 도전)행위나 완생기업들의 신제품개발 모두에 두루 적용 될 수 있는, 누구나가 이해, 공감, 교감, 습득이 용이한 벤처학 개발이 왕성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자들의 사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모델의 발굴이기도하다는 측면에서의 동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의와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벤처생태계 전반에서 수행 될 교육이 개인들의 창업(기업만들기)을 목표로 하는 공부라 되기도하고 연장에, 완생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신제품개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선발적 취업준비 공부도 될 수 있는 통합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 연구를 통해 제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 도전협업행위 포함) 생태계에서의 직무자들의 직무매칭력 및 협업행위에 있어서의 다양한 용어와 정의와 개념들의 제각각으로 부터 발생하는 상치(相馳, 제각각, 불통, 협업마찰, 대립, 갈등, 등)력을 해소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협업력을 최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 수용토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전벤처 단계의 벤처기초학을 바탕으로 하는 제벤처생태계 개념을 일원화 통합화하는 연장에 전개되는 공통무장교육 모델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가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세상 모든 제품(유무형, 이론, 학문, 학술, 제도, 교육, 완품, 부품, 부품의 부품, 기술, 이론, 프로그램, 게임, 앱, 제도, 사람, 예술, 등, 등 교환력을 가지는 모든 매개체)계 저변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있는 모든 창조적 도전행위들. 즉, 새로운 착안, 아이디어, 신제품화 개발, 등으로 시장교환력을 확보하려는 모든 행위들이 교환, 분업, 협업이라는 직무행위적 결합을 위해 노력(노동과 열정에너지)되는 이 생태계를 ‘벤처’ 또는 ‘벤처생태계’라는 용어로 일원화한다.

연장에, 벤처에 대한 정의의 개념을 공유하고 벤처적 직무태도라는 특수한 방법과 철학, 이념, 가치관, 마인드를 먼저 무장하고, 다음으로 건축, 영화, 음악계와 같이 분류

된 개인기 또는 직무각론과 같은 한 개 아이디어가 시장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공직무들을 선택적으로 무장하는 단계를 거치고, 다음으로 국가 산업분류표 기준의 연장에 IT든 전자, 전기, 바이오, 자동차, 조선, 생활용품, 스포츠, 연예, 등 제 제품분야 중의 한 분야를 선택하여 각론적 무장을 이수하는 단계의 벤처교육 과정을 가설한다.

연장에, MBA학 교육이 세상의 모든 제품과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듯, 이 MBA가 회계, 재무, 제조, 마케팅, 등의 전문직무로 각론화되어 선택되고 이 모든 직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영학원론이라는 개론을 공유하듯, 제벤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학문을 MVA(PH-MVA, master of venture arming, 벤처무장학)로하고 학문에 걸맞는 직무들을 각론화 전공직무화로 나누는 연장에 모든 직무자들이 공

유해야하는 벤처학원론을 가설한다.

연장에, 벤처생태계에서 수행되는 모든 직무자들의 분업, 협업 행위들을 건축, 영화, 음악계에서의 설계도, 시나리오, 악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분업, 협업에 비교하여, 건축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건축물이든 목수, 미장, 전기, 설비, 등의 전문직무자들만 있다면, 그리고 영화제작에 있어 감독, 조명, 배우, 소품, 등 이들만 있다면, 그리고 음악에 있어 관악, 타악, 현악, 등의 악기와 연주직무자들만 있다면, 세상 모든 건축물, 영화, 음악들을 제품화하여 시장력을 확보 할 수 있듯이, 세상의 모든 제품 분야의 착안과 아이디어들 또한 연주(분업, 협업) 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운다. 단, 건축물, 영화, 음악의 시장적 대박성, 즉 벤처행위의 결과로서의 성공 실패의 여부는 일단 후차적인 노력의 문제로 유보하고 왕성한 시도성 그 자체의 가능성의 판단을 전제한다.

2. 현실적 문제제기

1) 상치(相馳 : 서로 맞지않음)

위 가설적 관점에서 제벤처생태계의 분업과 협업적 관점에서의 현실을 분석하면, 생태계마다의 다양한 제각각적 정의와 개념과 용어들로 교육들이 제공되다보니 상치(相馳, 제각각, 불통, 협업마찰, 대립, 갈등, 등)력이 매우 심각하게 작용하여 협업시너지는 커녕 마이너스적 협업이 심각하게 작용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세상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같은 맥락의 취지, 목적, 목표를 가지는 행위가 산업, 제품계 마다의 용어와 개념이 모두 제각각적이라 같은 맥락의 생태계에 종사하면서도 분업과 협업적 소통과 직무매칭력 등의 호환성이 협업적이기는 커녕 매우 상충되고 그 상충성이 역설적으로 서로간의 열정에너지들을 소모시키는 반협업적 작용으로 그 위력이 배가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 또한 우리사회 양극화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이라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의 창조경제계에서의 융복합을 운운하는 것은 시도와 노력은 가상하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주장한다.

2) 미생과 벤처

창조도전 벤처적 관점에서의 수렵, 채집행위에 임하는 직무자들의 자세는 이미 성공한 제품, 기업들에 참여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직무자들과는 그 자세가 분명히 달라야한다.

특히 가난한 미생들의 목숨을 거는 행위와도 같은 벤처

창업 도전에 있어, 이러한 협업 장애와 마찰은 모두 돈과 열정에너지의 낭비와 직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벤처생태계 종사 직무자들이 그러한 누군가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급여이든 외주비든 자신의 노력의 댓가에만 충실하려고 할 때 벤처주도직무자는 매우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될것이라 주장한다.

3) 개념의 부재

분명 벤처교육은 여러 각론 부문에서 차별화되어야한다. 가령 제조라는 것이 이미 숙성된 제조라인을 운영, 관리하는 기업과 초기단계의 무에서부터의 대량화 기반을 구축하는 직무내용은 판이하게 다르다. 지적재산 또한 마찬가지로. 출원도 중요하지만 분쟁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분쟁에 대한 실무를 가르키는 곳은 없는 등의 여러 부문에서 벤처적 개념 분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문제점 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개념 부재로 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학생들이나 직장인은 물론 리스타트, 일반인들 대부분이 벤처행위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를 더욱 배가시키며 역설적으로 벤처활성화를 저해하게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4) 성공한 벤처 그 후

이러한 불통과 마찰 대립 갈등들이 난무하는 생태계 속에서, 도박꾼이나 술주정꾼과 같은 사회적 문제자로 취급당하는 처참한 과정을 거쳐, 겨우 성공한 벤처행위 주체자가 기업체를 이루고 사장이 되었을 때, 무의식적 갑질과 공정한 분배에 인색함은 당연한 일이라 주장한다. 연장에 경영진과 직원들의 분규 대립 마찰 또한 기업의 시작인 벤처에서 부터 잉태되는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3. 결론

문제해결에 부합 될 제벤처 분야 직무자들 모두에게 통용 될 수 있는, 동일한 목적, 목표를 지향하는 열정에너지들이 마찰되어 낭비되는 현실을 개선 할 수 있는, 누구의 어떤 모델이든 객관적 합리성 타당성을 갖춘 해결모델이 제시되어 범사회적 합의를 거칠 수 있는 모델이 시급한 시점이라 주장하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이 분야 학자들이 해야 할 시대적 사명감으로 인지 수용해야할 준엄한 과제 임을 강조하고자한다. 이 문제해결이 곧 최상의 벤처활성화는 물론, 애송이 벤처가 백년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창조경제 대세기에 필요한 모두가 재무장해야 할 새로

은 백년대계 솔루션이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업적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부합되리라 주장하는 ‘벤처기초학 원론 연구모델’은, 건축, 영화, 음악계에서의 건축물을 시공하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합창 또는 연주행위를 분업협업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무자들이 일원화 된 정의와 개념의 공유를 바탕으로 표준화 된 생태계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협업성을 최적화하는 것과 같은 개념적 생태계를 성립 시켜보고자한다.

한 개 건축물이나 영화를 만드는 일 그 자체를 위한 협업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않는가? 다만 대박의 분양과 관객몰이의 시장력확보가 문제라는 점만 별개로 이해한다면, 이와 같이 벤처협업생태계 또한 교육열과 학습력 높은 구성원 들이 누구나가 쉽게 창조적 도전행위의 일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창조경제대세기 걸맞는 새로운 전인교육이 되리라 자신하며 이모두에 부할 될 수 있는 연구를 완성하고자한다.